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사무소 문 열었다

미국 거점 역할… 유망 투자기회 적극 발굴

국민연금이 금융·기술 혁신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를 신설하고 유망 투자 기회 발굴에 적극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원 부시(One Bush)에서 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사무소 개소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2011년 미국 뉴욕, 2012년 영국 런던 2015년 싱가포르에 이어 9년 만이다.

개소식에는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제니 존슨 프랭클린템플턴최고경영자(CBO), 존 그레이트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롭 스피어 티시먼 스피어 최고경영자



국민연금이 금융·기술 혁신 중심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해외사무소를 신설하고 유망 투자 기회 발굴에 적극 나선다.

과정에서 해당 자산을 개발한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인 히인즈(Hines)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개소식

에 참가한 또 하나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인 티시먼 스피어(Tishman Speyer)도 국민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 중이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오는 11~12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하 '지주청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참여 청년들의 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류상황 대처 및 안전 지식 학습을 위한 교육이며, 임실군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19

안전체험관'에서 진행 된다.

참여 청년들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재난 안전 교육을 기획하였고, △재난종합체험 △위기탈출체험 △전문

응급처치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주청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약 1,800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기여하였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지주청사업은 도내 기업과 청년들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도

내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주청사업에 관한 자체화 사항은 전북자치도일자리센터 일자리취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한국쓰리축과 공동 성장 업무 협약 체결

매출·상호 이익 증대 위한 공동 마케팅·프로모션 활성화



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JB스마트오토론은 이용하는 한국쓰리축 고객들에게 보다 유리한 오토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오토금융을 상용·특장차와 연계한 금융서비스로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JB스마트오토론은 차량 구매 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빠르고 유연한 대출 한도와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JB스마트오토론의 이용 고객층 확대와 상용차 관련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주)한국쓰리축은 2004년에 설립된 이후 20년 이상 특장 및 가면축 제조 분야에서 탁월한 업력을 쌓아온 기업으로, 국내 물류 산업의 중대한 축을 담당하는 특장차 제조업체다.

회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장차와 부속품을 개발 및 생산하며, 전국 6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신뢰성 높은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추석맞이 우리 축산물 나눔 사업 실시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자 진행됐다.

박병철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나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에 활동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시장 박지현)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대상 개최

은탑산업훈장 에스케이하이닉스 김만섭 부사장 등 유공자 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분야 최대의 행사로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실황이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참석자 이외에도 일반 국민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한국기스안전공사 박병국 사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봉우 원장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

농어촌공, '윤리·인권 주간' 청렴 경영 실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시적인 '윤리·인권 주간'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청렴 윤리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년 하루 기념하던 '윤리의 날'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윤리·인권 주간'은 올해 2년째로 공사의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사는 조직 내 윤리적 행동과 인권 보호 실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윤리·인권 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당 주간에는 △조직문화 향상 토론회, △윤리·인권 영화 상영 및 특강, △청렴·감찰 수준 차기 진단(클리어도계)·퀴즈, △반부패·청렴 교육 등 윤리·인권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영진과 노동 조합, 감사 주관 부서가 합동으로 윤리·인권 경영 현판식을 개최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청렴·윤리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며, 모든 임직원이 청렴 윤리와 인권 존중 의식을 내재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외에 선포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윤리·인권 주간을 통해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